경북 교구본사들, 北출신 동국인 지원

동화사 · 은해사 · 불국사 등 장학금 쾌척

동국대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포항 원법사 포함 4000만 원
서울·WISE캠퍼스 학생 24명
석굴암 등 경주 일원 탐방도

경주=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북한 출신 동국대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가 7월 11일 경주 코모도호텔 연회장에서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 제44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건학위는 북한 출신 재학생 24명(서울캠퍼스 20명, WISE캠퍼스 4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으며 각각 1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동화사(9교구본사), 은해사(10교구본사), 불국사(11교구본사), 포항 원법사가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후원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불국사 종상 대종사,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은해사 회주 돈명 대종사,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WISE캠퍼스 총장, 문선배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황경환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위원 등이 동참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개회사와 삼귀의로 시작해 내빈들의 축사와 답사로 이어졌으며, 상월결사 인도순례 영상시청, 장학증서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수여식 후 장학생들은 편지를 전달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학생들은 감사편지를 통해 각자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전하면서 장학금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향정 학생(간호학과)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금전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살 수 밖에 없었다"며 "장학생 선발은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한다. 장학금을 주신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내빈들은 축사와 답사를 통해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 취지에 공감하고 학생들에게 축하인사를 건넸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국경을 넘고 이념을 넘어 동국대에 재학 중인 북한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돼 뜻깊다"며 "장학금을 통해 앞으로 학문적으로 더욱 정진하고 동국인이자 청년불자로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제44회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건학위 출범 이후 한 달에 평균 3~4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다"며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은 동국의 발전이며 불교 중흥의 씨앗이 된다"고 말했다.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오늘의 기억이 따뜻한 마음의 추억과 힘으로 남아서 지지와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불교종립 동국대는 2021년 4월 건학위원회를 출범하고 불교종립대학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찰과 함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학 사업은 지난 2021년 11월 포항 원법사의 장학금을 시작으로 44회를 맞았으며 장학금 모금액이 현재 약 6억 원, 장학생은 약 630여 명에 이른다.

한편 건학위는 7월 11~12일 북한 출신 재학생들을 위한 경주 주요 불교 문화재 탐방을 실시했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방문한 불국사에서는 이사장 돈관 스님이 직접 학생들에게 천왕문부터 대웅전까지 설명하고 안내했으며,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불교 중흥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불국사 교무국장 정수 스님은 다보탑과 석가탑 등 불국사 대표 전통문화재를 소개했으며 학생들은 불국사 일원을 돌아보며 전통불교문화재를 관람했다. 참여대중은 다음 날 방문한 석굴암에서 부처님 전에 참배하고 경주 주요 문화재와 관광지를 탐방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태고종 부산종무원, 전통범패 학인모집

9월 5일, 부산 동래구 종무원 법당서 개강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종무원(종무원장 마나)이 한국불교 전통범패 의식을 교육하는 강의를 개설하고 학인을 모집한다.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종무원은 9월 5일부터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 법당에서 전통범패 관련 강의를 개강한다. 개강식은 9월 5일 오후 2시이며,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1년이다.

교육 내용은 조석예불에 필요한 종송과 향수해례, 사성례 등과 사시예불을 위한 거불성, 독경, 동음 등 예불을 위한 수업부터 시작한다. 이어 기본적인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헌좌제, 도량게 등을 배워 습의를 마무리한다. 천도의식과 수륙재, 점안의식을 비롯한 천수바라와 사다라니 바다, 요잡 등 바라의식 및 나비춤 수업도 이어진다.

강사는 지효 스님(남운정사 주지)이 맡았다. 지효 스님은 약 15년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부터 각종 범음 범패에 이르기까지 전통의식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홍익 범패단에 입단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홍익 범패단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영산재 및 합동 위령재, 호국 추모재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태고종 부산종무원은 "지효 스님을 강사로 모시고 전통범패의식을 기초의식부터 각종 의식과 사물 다루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강의하고 안내하고자 한다"며 "많은 스님들이 전통 불교 의식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모든 강의는 기초부터 상세히 설명하고 수준별 깊이 있는 내용으로 수강생에게 세계문화유산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10-4466-3575 이도경 부산지사장

금정중학교 파라미타 열암곡 마애불 참배

재학생 40여 명 동참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박명규)는 7월 1일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참배 및 경주문화 탐방'을 개최했다. 탐방은 학생들이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참배하고 부처님 바로세우기 불사의 원만성취를 발원하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이석언 금정중 교법사를 비롯한 파라미타 교사들과 정재운 금정중 파라미타 회장, 한도윤 금정중 학생회장, 박광렬 부회장 등 재학생 40여 명이 동참했다.

금정중 파라미타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친견하고 경주 일대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이석언 교법사는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곧 나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불교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삼독에 물든 마음을 돌아보며 미래와 인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짜 불사"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어산회 정통성 고찰

'범어사 어산집' 주제 워크숍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유단체 부산불교어산회(보유단체장 성림)가 7월 5일부터 6일까지 부산 해운대 그린나래호텔에서 부산영산재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크숍은 무형문화재 원형 유지와 전승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개최됐으며, 부산불교어산회의 정통성을 1700년대 목판한 범어사 어산집을 통해 고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불교어산회의 전통 및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자료는 정영진 교수(경성대)의 '어산집(漁山集)에 관한 고찰'을 읽고 발표했다. 발표는 성림 스님(부산영산재 범패 전수 조교 보유단체장)과 박재혁 前 정관박물관장이 담당했다.



부산불교어산회가 7월 5~6일 부산 해운대 그린나래호텔에서 부산영산재 워크숍을 개최했다.

성림 스님은 "어산집에 관한 고찰 논문에 따르면 대휘화상(1725~1776)이 쓴 '범음종보'에 열거된 조선왕조 중기까지의 범패 계보에서 제9대인 혜감(惠鑑)에 이르러서 광사의 순영 등 많은 제자가 배출되어 경상 전라도의 사찰에 범패가 퍼져나갔다"며 "경산(京山) 중심의 윗녘소리와 대구 팔공산 이남의 영남제, 아랫녘소리가 있는데 팔공산제 중 통도사와 범어사의 범패가 두드러져 소위 통범소리라 불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랫녘의 마지막 남아 있는 통범소리는 그 본거지를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에 두고 있고 그 맥을 부산불교어산회가 계승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림 스님은 "영남범패의 범음곡 35곡을 열심히 훈습해 입으로 가르치고 마음으로 전하는 구전심수(口傳心授)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에 자리한 천태종 사찰을 탐방하며 다도체험 등 한국불교문화를 경험한 입양아 가족들.

입양아 가족에 한국전통문화 소개

나누며하나되기, 삼광사 및 광명사 등 천태종 사찰 방문

천태종 NGO (사)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개문)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달간 한인 입양아 가족을 위한 한국전통문화 탐방을 진행했다.

한국을 방문한 입양아 가족들은 10대와 20대 입양아와 가족으로 구성된 미국 미네소타팀 67명과 뉴욕팀 27명 등으로 두 차례에 나눠 탐방이 진행됐다. 입양아 가족들은 한국전쟁 73주년 현장을 보여주는 안보 관광지 파주 임진각과 용산 전쟁기념관, 부산 유엔기념공원 등을 방문했다. 특히 부산 삼광사와 광명사를 방문해 한국 전통 불교문화를 알아보는 다도와 사찰음식, 연꽃등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박줄리아 세종문화교육원 원장은 "한국에서 지낸 10박 11일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을 확인하는 시간이자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의미있는 기회였다"며 "특히 친모 상봉을 통해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신 천태종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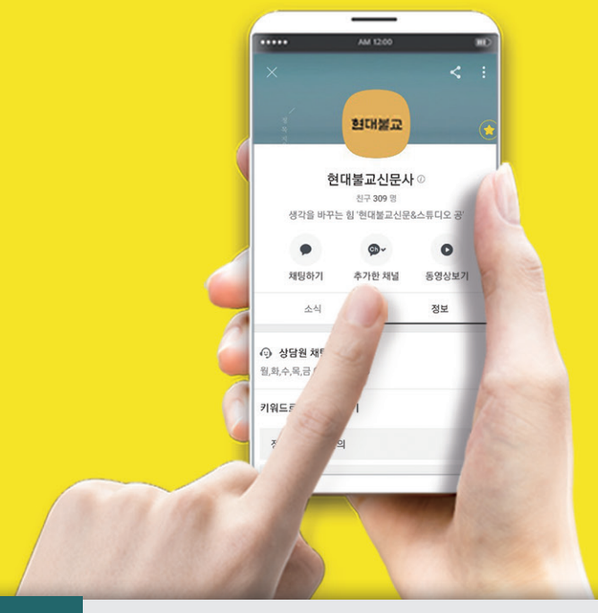
(사)나누며하나되기는 "한국전쟁 이후 어려웠던 나라 사정과 가정 형편 등으로 우리 한국의 고아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입양을 한 지 60여 년이 흘렀다. 이 세월 동안 20여만 명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2023년에도 여전히 해외입양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뿌리와 정체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한 세종문화교육원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